

제4호

교육선교소식

제70차 전국겨울연찬회를 마치면서 드리는 글



한국교육자선교회
 회장 이윤식 장로

1. 「영혼구원의 포크레인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복된 연찬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참석하여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많은 회원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70차 전국겨울연찬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찬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한 겨울 날씨가 공사다망한 가운데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연찬회에 참가하여 주신 회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마 6:33).

2. 한국교육자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회, 지방회, 지역회 간에 leadership, followership, colleagueship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가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지향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힘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leadership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러기 무리가 V자 대형을 이루어 날아가며 leadership, followership, colleagueship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teamwork을 통해 혼자 날아가는 기러기 보다 71%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비행은 한국교육자선교회의 중앙회, 지방회, 지역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3. 연찬회에서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학교현장에 돌아가셔서 동료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 라는 말씀처럼 이번 연찬회에서 나에게 부어지고 채워진 ‘성령의 기름’을 주변에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나누어주고 흘려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4. 한국교육자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드온 300 후원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는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 임원과 이사들이 내는 회비, 교회들로부터 받는 후원금, 세운모임이 내는 후원금, 지방회가 내는 상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억의 수입으로 행사비(겨울연찬회 주관, 여름연찬회 지원, 지방회·지역회 순회 방문 후원 등), 인쇄비(회보 [사랑의 교육]인쇄, 소식지 제작, 전도 책자, 선교회 리플렛 인쇄 등), 회의비(월례회, 이사회, 임원 기도회, 지역회 연합모임 등), 인건비(사무총장 및 간사 인건비, 복지후생비 등), 운영비(사무비, 통신우편비,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도서신문 구독비, 경조비, 접대비 등), 관리비(사무실관리비, 건물유지 분담금 등)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①지방회·지역회 조직 순회 지원 강화 및 지방회 간 자매 결연 활동(신설 및 재조직 지방회 - 충남, 충북, 강원, 세종, 전남, 광주: 신설 및 재조직 지역회 - 천안, 원주, 속초, 강릉, 군산, 광양, 여수, 보성, 순천, 고성 등), ②선교회 홍보 활동(전국연찬회 국민일보 홍보 광고 게재, 선교회 홍보 영상 제작 전파 등), ③청소년 신앙프로그램 실시(청소년 연찬회 프로그램, 스쿨임팩트, 찬양제, 청소년 리더 발굴 훈련 등), ④교육자선교회 리더 요원 교육양성(지방회·지역회의 리더 및 학교 교사신우회의 리더 교육양성 등), ⑤선교소식지 발간 강화(지방회·지역회의 활동 소식 전파 및 공유, 중앙회의 활동 소식 전파 등), ⑥후원회 조직 및 후원의 밤 개최(교회, 기독교단체, 기독교실업인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등), ⑦「북한교육자선교회」 조직 지원을 위한 기도와 준비기금 마련 등의 활동을 계획·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연간 3000만원이상 정도의 예산 소요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만원 후원 회원 300명 확보를 위하여 [기드온 300 후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한국교육자선교회 회원님들에게 2014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0차 전국겨울연찬회 SKETCH



하는 교육선교 (왕하2:9)
선교회 전국겨울연
대센트유스호텔 주관 : 한국교육자선교회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내 속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움을 씻어내려 합니다..
은혜로운 성령의 기름으로 그 속을 뽕뽕하게 채우려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울고 웃으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발 끈 동여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70차 한국교육자선교회
일시 : 2014.1.13(월)~15(수)



대구 지방회 청소년부 활동 내용

1.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연합 기도회

2013년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청소년 동아리 25개 지원금 전달
 -강북 지역 연합 5개
 -협성 재단 산하 5개
 -기타 대구지역 15개 동아리 지원금 전달

2. 청소년 클릭 비전

= 대구극동방송 91.9MHz 클릭비전 진행자 석상범 전도사
 2013년 2월 레디컬워십 대표이자 CCM사역자 이강훈 전도사와 대음세대 전방위 선교사(계성고등학교 교목) 석상범 전도사가 함께 서울극동방송에서 전국으로 방송되던 클릭비전 방송을 대구에서 새롭게 시작하였다.
 매일 밤 12시 듣고 싶은 또 하나의 목소리, 비전이 클릭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클릭비전 2부 진행자 석상범 전도사입니다...”★



비전임팩트 페스티벌 2013(인천)

인천지방회장
 이승복 장로



한 국교육자선교회 인천지방회는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학기별로 선교대회를 개최해오며 대회를 통하여 학교 신우회원들이 모이며 은혜를 받으며 결속을 다져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후반기 선교대회를 좀 더 뜻 깊게 만들어보자는 마음들이 모여서 교사들이 아닌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하는데 마음이 일치하였다. 그래서 신우학생들을 위한 찬양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로 기도 하던 중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알맞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를 찾던 중 스쿨임팩트 주관으로 8월 17일에 영락교회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것에 고무되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신우 학생들, 신우회 선생님들이 이 대회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 대회를 참관한 후에 나름대로 평가회를 가진 후에 우리들의 임팩트를 준비하기로 했다.

9월 9일 스쿨임팩트의 천태혁 목사님을 모시고 나름대로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꿈꾸는 자여, 네 꿈을 펼쳐라!”라는 제목으로 인천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임팩트 페스티벌 2013을 준비하게 되었다. 사회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개그맨 오지현 씨나 가수 양동근 씨로 하고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게스트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다니엘박 교수와 딸 지원이, 노승주 소장, 작선경 작가, 해리티지, 박광식, 예로이 등의 예술가들이 대상자가 되었다. 행사 참여 학생은 700여명, 예산은 1천만원을 잡았고 선교회 임원들이 십시일반 10만원씩 후원하고 각 교회 및 신우회 후원으로 500만원을 계획했다. 이러한 예산 계획은 결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1천만원이 약간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참가한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자전거 등의 풍성한 선물도 안겨줄 수 있었다.

날짜와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들은 이렇게 준비했다. 9월 23일 월례회를 통하여 각 교회와 학교, 신우회에 포스터와 전단지과 공문을 배부하기로 하고 인천 전지역의 중고등학교와 큰 교회에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아이메신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연락도 취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순회에 배를 통하여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거리가 먼 강화지역회를 제외하고는 9월에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북부, 동부, 남부 지역의 순회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대회를 알렸다.

작은 행운권 전단지를 만들어서 신우회원들이 직접 뿌렸으며, 10월에 두 차례 인천기독교신문에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행사 당일엔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인천신현고 학생 찬조출연팀의 사물놀이와 댄스 동아리로 선교대회의 개막을 알렸으나 교회의 본당 앞자리만 겨우 채워지고 있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상 인원을 훨씬 못 미친 200여명의 참가로 그쳐서 우리들은 무척 실망하였다. 그러나 속히 믿음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보니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준 믿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고, 너나할 것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신우회원들이 보였다.

선교회 임원들은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직접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며 ‘한 영혼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선교회원들은 기도로 하나가 되는 좋은 경험을 가졌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처음으로 개최해본 학생 중심의 선교대회에 대한 반성과 내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을 나누며 선교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

울산지방회 활동 소식



울산교회 미자립교회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자녀(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2014.1.21. 울산제일교회 1층). 울산노회 산하에 미자립교회가 37개소인데 대학생은 노회 장학후원회에서 지급하고 중, 고등학생은 울산학원선교후원회에서 지급한다. 장학금부족으로 다 혜택을 줄 수 없어 마음 아프다. 이번에는 특히 방학기간이라 위로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마련, 맛있는 식탁으로 초대하여 서로 대화하며 친교도 가졌다. 하루 속히 자녀들이 잘 자라 부모에게 효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다. ♪

금년에도 음력명절을 맞이하여 울산 세종공업사 참사랑 봉사팀에서(2014.1.28.) 준비해 온 쌀20kg 15포대, 통조림 15상자, 한과15상자 등으로 소년소녀 결손15가정을 위로 방문하였다. 세종공업사 직원2명과 홍성범 장로, 김종규 장로, 박도창 목사 등이 봉사했다. 세종공업사는 그 뿐만 아니라 10여명의 소년소녀 학생들에게 매월 5만원씩 5년째 장학금을 전달하여 공부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구제는 뿌려진 씨앗과 같다. ♥



제주



제주지방회(회장 양인자 권사)는 지난 2013년 11월 30일 제주 성지교회에서 열린 직장선교 찬양축제에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주님께 참 감사해'라는 찬양을 통해 전체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주 지역 직장복음화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기드온 300”후원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서(홈페이지 탑재)를 작성하신 후 아래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Fax : 02)764-1483,
E-mail : kceanet@naver.com]
계좌번호 (예금주 : 차재연 연합회)
국민은행: 008601-04-085967

“후원금 입금현황”

교육선교 동지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선교회는 개별학교 신우회와 지역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독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선교자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중앙회가 능력있는 선교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후원계좌번호 예 금 주 : 차재연
국민은행 : 830-01-0115-113
신한은행 : 110-372-906825
우리은행 : 1002-530-306592
우 체 국 : 101793-02-219274
농 협 : 027-12-194356

10-12월 후원자 : 감경운 강경현 강복희(부산) 강운명 고재욱 권경민 권덕순 권윤순 기성임 김경자 김구자 김규영 김기탁 김남훈 김대수 김두영 김보열 김서휘 김세영 김숙희 김순자 김영미 김영심 김영주 김영희 김인숙 김정숙연찬후원 김종학

김지영 김천지역회 김형극 김준자 김행자 김향숙 김형태 남명순 남상욱 도은준 동대문교회 동아교회 동인교회 동주김영숙 드보라여전도회 류길순 문석관 박경숙 박경자 박대덕 박동국 박연희 박예연 박정숙 박정화 박창대 백순자 서교동교회 상동교회 서보연 서현석 서현순 성기옥 세운모임 소시중 손경란 손옥희 손효숙 송미림 신미라 신미선 신서영 신영민 신영옥 신용호 심상백 안인 안병희 안순희 안인자 양금선 양미정 양점선 엄분옥 엄원용 여성에 오국진 월례회헌금 오세희 윤경은 이은 이경희 이명호 이미지 이병석 이봉운 이사와 이순중합관설 이영규 이영옥 이윤식 이윤진 이장순 이정희 이종식 이종호 이진영 이질례 이창환 이천지역회 이태세 이혜순 이효신 임원용 장양순 장완동 장철환 전오 전국임원모임헌금 전상조 전성호 전숙자 정순화 정태옥 정희만 조경자 조남호 조만영 조미령 조소현 조점순 조정희 주영진 진애경 차동혁 차재경 차재연 차재용 차재운 창덕제일교회 창천감리교회 천성호 최병후 최홍상 포도나무교회 학교교육연구원 한양섭 한정숙 한중숙 허성렬(부산) 황유숙 황치원